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상유품(象喻品) ①

我如象調 아여상투
不恐中箭 불공중전
常以誠信 상이성신
度無成人 도무계인

오로지 나쁜 행에만 빠져든 사람
항상 탐욕으로 자신을 묶으니
저 코끼리 만족할 줄 모르듯
그런 까닭에 자주 탕집으로 드나든다

本意爲純行 본의위순행
及常行所安 급상행소안
悉捨降伏結 실사항복결
如鈎制象調 여구제상조

나는 저 코끼리가 싸울 때에
화살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항상 지극한 믿음으로써
계행 않는 사람들을 제도한다

譬象調正 비상조정
可中王乘 가중왕승
謂爲尊人 조위존인
乃受誠信 내수성신

욕심따라 뜻따라 행을 하고
항상 편안하길 바라던 마음
모두 다 버리고 항복 받아 잡아매니
재갈 물려 코끼리 길들임과 같네

樂道不放逸 나도불방일
能常自護心 능상자호심
是爲拔身苦 시위발신고
如象出于埵 여상출우함

저 코끼리가 잘 길들여지면
입금이 타기에 알맞은 것처럼
마음을 잘 조습하면 존귀한 사람
정성과 믿음으로 높임 받는다.

雖爲常調 수위상조
如彼新聽 여피신치
亦最善象 역최선상
不如自調 불여자조

도를 좋아해 방일하지 않고
늘 스스로 마음지키면
이것이 이 몸의 괴로움 뽑는것
저 코끼리 수렁에서 빠져나오듯

若得賢能伴 약득현능반

어진 이 만나 함께 선 행하되 굳세면
듣고 봄 행복반아 뜻을 잃지 않는다

비록 늘 길들여진 것이라도
잘 달리는 당나귀라도
가장 좋은 큰 코끼리라도
스스로 조어함만 같지 못하다

俱行行善伴 구행행선한
能大諍所聞 능복제소문
至到不失意 지도부실의

彼不能適 피불능적
人所不至 인소불지
唯自調者 유자조자
能到調方 능도조방

만약 어진 이 만나 짝할 수 있어
함께 선을 행하되 굳세게 하면
늘 호 보고듣는것 행복반아
이르는 곳마다 뜻을 잃지 않는다

不得賢能伴 불득현능반
俱行行惡伴 구행행악한
廣斷王惡里 광단왕을리
寧獨不爲惡 영독불위악

저 길들인 코끼리라도
사람들이 못가는 곳은 갈 수 없지만
오직 스스로를 길들인 사람은
그만이 능히 저 언덕에 이를 수 있다

如象名財守 여상명재수
猛害難禁制 맹해난금제
繫絆不與食 계반불여식
而猶暴逸象 이유폭일상

어진 이 만나 짝할 수 없어
거칠고 나쁜 행 굳세게 하면
저 넓은 왕을 버릴지라도
차라리 홀로 되어 악을 짓지 말라

寧獨子爲善 영독행위선
不與惡爲侶 불여우위려
獨而不爲惡 독이불위악
如象驚自護 여상경자호

저 '재수'란 이름의 코끼리는
사냥고 해로위 제어하기 어렵다
붙잡아 매어두면 밥도 먹지않고
오직 난폭하게 날뛰기만 할 뿐

차라리 홀로 선을 행할지언정
어리석은 이와 더불어 짝하지 말라
홀로 되어 악행하지 않는 것
저 놀란 코끼리 제몸 지키듯 하라

沒在惡行者 물재악행자
恒以貪自繫 함이탐자계
其象不知厭 기상불지염
故數入胞胎 고수입태대

龍眼

큰스님 수행한담

“밖에서 원인 찾지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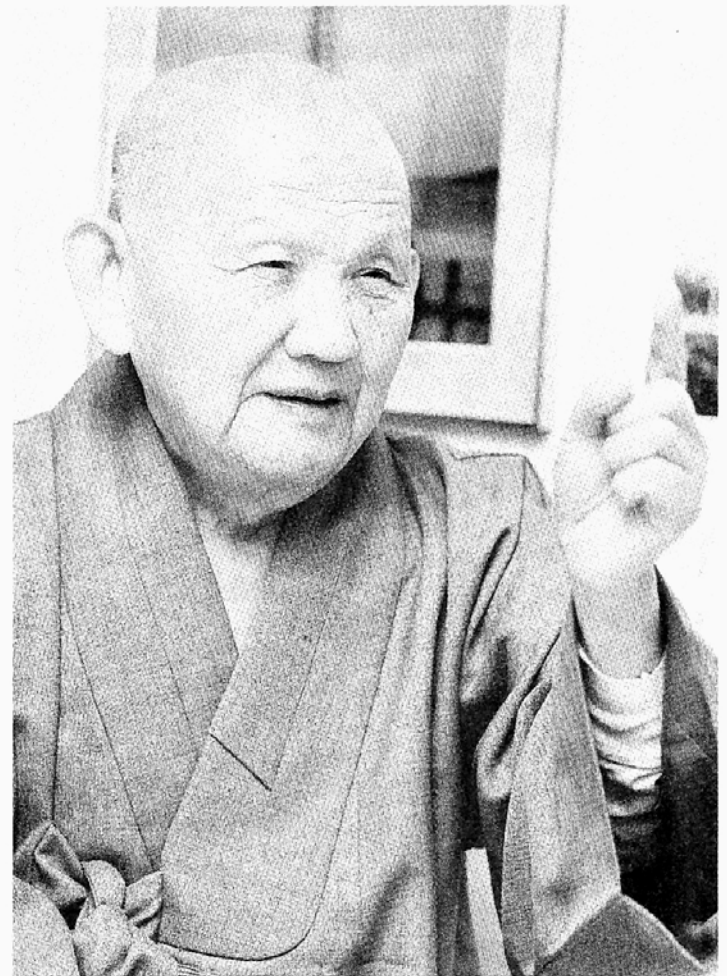
충담스님 (승가사 회주)

지금 나라안팎에서 온통 경제난국이라
아우성치고 있지만 말만 앞세우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된게 누구탓입니까.
왜 원망을 밖으로 돌리니까. 원인없는 결
과는 없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꼼꼼히 생각해 보세요. 분수를 모르고 사
치와 과욕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탐·
진·치 삼독에 빠져 있었던 결과가 이러
게 나타난 겁니다. 남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모두 내가 내 분수를 모르고 허
욕과 망상을 부린 결과입니다. 얼마나 어
리석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를 현실팩처럼
던져버렸어요. 높은 자리, 화려한 궁전,
명예 등이 모두 헛되고 순간에 불과하다
는 것을 깨우친 거예요. 치열한 수행을
통해 허깨비밖에 안되는 욕심을 버리고
오로지 불도를 이루겠다는 큰 원력을 낸
것이죠. 혼탁한 세상일수록 부처님의
진리가 천고에 빛나는 이치가 바로 여기
에 있습니다. 참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다시는 이 땅에 나라를 잃은 한(恨)이나
6·25와 같은 동족상잔의 비극이 재현되
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사라져 버리고 말죠. 사바세계가
다 고(苦)라 했어요. 괴로우니까 고통에
서 벗어나야겠고 그래서 화두를 잡는데
사실 세상에 화두 아닌 게 어디 있나요.
고에서 벗어나려는 중생의 마음이 곧 화
두입니다. 만주별관에서 노숙을 하며 잡
은 화두가 바로 조국의 광복입니다. 나라
잃은 슬픔도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 동
포를 일깨우는 거였어요.

1945년 8월15일 백중마지를 마치고 아
리랑고개를 넘어 왕십리로 오던 길에 일
본순사에게 붙들려다가 해방을 맞았습니
다. 같은 하늘아래 같은 땅을 밟고 살며
거기서 난 것을 먹고 사는 우리들에게
해방은 너무도 감격스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제대로 만끽하지 못한
채 동족상잔의 6·25가 터졌습니다.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지요. 병원과 화장터를
오가며 죽은 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환난
이 하루마베 소멸되기를 기원했습니다.

- 1913년 5월 경기 가평 생
1930년 4월 삼각산 승가사에서
심월화상을 은사로 출가.
1944년 4월 서울 무학산 승가사
창건
1956년 5월 경기 가평 호명산
감로사 창건
1990년 1월 한국불교 태고종 원
로 추대
1992년 7월 20하안거 성만
現 성종구 승가사에 주석



“세상에 화두 아닌것이 없어요
꿈에서 벗어나려는
중생의 마음이 곧 화두입니다”

국방군에 소집되어 막노동과 전투 속
에서도 염불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
다. 휴전이 되자 제일 먼저 한 일 역시 광
화통일의 염원과 모든 중생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도량을 호명산 감로암에 마련
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든 여섯이예요. 나라잃은
슬픔과 전쟁의 참혹함을 맛보았고, 그보
다 더한 불교분규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저 북녘
땅의 동포들은 굶주리고 있으며 이 땅의
우리들은 무분별한 사치와 과욕으로 경
제난국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

럽고 떳떳합니다.

‘약념일구 아미타불 능멸팔십억겁 생
사종죄(若念一句 阿彌陀佛 能滅八十億劫
生死重罪)’
‘약념일구 아미타불 성취팔십억겁 수승
공덕(若念一句 阿彌陀佛 成就八十億劫
殊勝功德)’

육조혜능대사는 염불에 무슨 이익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 “한 구절 나무아
미타불을 염(念)하는 것이 만세(萬世)의
타발번뇌를 뛰어넘는 묘한 길이요, 부처
가 되고 조사(祖師)가 되는 정당한 원인
이며, 삼계(三界)의 천상인간의 눈이요,

마음을 밝히고 제 성품을 보는 지혜등불
이다”고 답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아미타불을 지성으로 한번 부르지만 해
도 팔십억겁 동안 지은 죄가 다 소멸된
다고 하지 않습니까. 극락세계는 따로 있
는 것이 아닙니다. 먼 곳에 있는 것도 아
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의
모든 사람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선한 일
을 한다면 이곳이 곧 극락인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강로암에 따로 토굴을 만
들어 좌선정진(坐禪精進)하며 틈틈이 서
방공락교주 아미타불을 관하고 염불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정토3부경 중 관무
량수경 16권법 중 제1관을 참구하게 되
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
에 모아 서쪽을 생각하라. 중생들은 태어
나면서부터 소경이 아니고 눈이 있는 자
는 누구나 해가 지는 것을 볼 수 있으니
서쪽을 향해 단정히 앉아 지는 해를 똑
똑히 바라보라. 해를 보고 난 후에도 눈

1997년 3월 4일 화요일 주간불교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대구 여래한방병원 시연 스팀



오랜세월 불치병 치료에 전념해
온 시연스님은 건강식품인 불로
화정을 현대화된 의약품으로 선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특허출원자인 시연스님은 “불
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위장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
효능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 감식초음료 시장이
2백50억원대의 규모로 확장돼
있는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하면
사업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상업적 주목적만을
따라 하는 것은 아니다. 불로화정의
판매 수익금은 경주시내 99명 대
지에 건립될 5층규모의 한방병원
실질에 쓰여진다. 또 한방병원
건물내에는 무료예식장과 탁아소
도 만든다는 것이 스팀의 계획이
다.

오랜세월 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
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외에 10여종의 첨
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
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힘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
아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
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불로화정 (不老化精)

오랜세월 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
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외에 10여종의 첨
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
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힘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
아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
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 정가 50만원 2개월분은
₩400,000으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 대구은행 김창수 : 033-07-172508

如來健康院

문의전화 : (053)655-2227

법보신문 제409호 1997년 3월 5일 수요일 12

화제

여래한방원 시연스님 ‘불로화정’ 특허 출원



대구에서 여러
건강원을 운영하
며 병에 시달리
는 불자들을 돌보
오던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외에 10
여가지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

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화제이다.
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위장
질환과 암을 억제하며 노인성 질환을
예방, 치료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참가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가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
가 입증된 ‘세시미놀’ 성분을 대량
추출한 ‘세시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 물질로 지금까

-KBS TV 6시 내고향(9월9일) 방영-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하였음